

코로나에 청년 창업 의지마저 꺾였다

호남·제주 청년 "창업 생각 없다" 지난해 71.8%...1년전보다 12.8% ↑ 창업 비율 17.7%서 8.9%로 반토막...소비침체에 나홀로 사장도 늘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역 청년들의 창업 의지마저 꺾었다. 19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광주·전라·제주 만 18~34세 468명에게 창업 의사를 물어보니 '창업을 생각해보면 적어 없다'는 응답률이 71.8%에 달했다. 이 응답률은 1년 전(59.0%)보다 12.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매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를 진행하며 청년들의 창업 의사를 묻고 있다. 지난해에는 7월6일부터 9월18일까지 8주 동안 지역 청년 468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조사를 벌였다. 실제로 창업을 했다는 응답 비율은 전년에 비해 반토막 났다. '창업을 생각해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는

응답률은 지난 2018년 7.2%에서 이듬해 17.7%로 2.5배 가까이 뛰었지만, 지난해는 8.9%로 절반 줄었다. '실제로 창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창업을 생각해보았다'는 응답률도 2018년 18.9%→2019년 23.2%→2020년 19.3%로 1년 새 3.9%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청년들의 창업 의향이 크게 줄어든 데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나 홀로 사장'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광주·전남 자영업자는 42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4000명 증가했다. 광주 자영업자는 전년대비 5000명(3.2%) 증가한 15만명이었고, 전남 자영업자는 1000명(-0.6%) 줄어든 27만9000명이었다. 지난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광주 4만6000명·전남 4만2000명 등 8만8000명이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광주 10만4000명·전남

■ 호남·제주 청년층 창업의향 조사 <단위:%>

연도	실제 창업했다	생각만 했다	창업생각 없다
2017	11.7	33.1	55.2
2018	7.2	18.9	73.8
2019	17.7	23.2	59.0
2020	8.9	19.3	71.8

<자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3만7000명 등 3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불황을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일하면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보다 훨씬 많았다. 광주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00명 줄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000명 증가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5000명 늘어 열악한 자영업자 실태를 반영했다. 전남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000명 줄고, 무급가족 종사자는 2000명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설 선물로 골드바 어때요

'소의 해' 소재 새겨진 골드바 출시

설 선물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골드바가 등장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층 '골드듀' 보석 매장에서 2021년 신축년 '하얀 소의 해'를 기념해 소의 형상이 새겨진 금괴(골드바)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이 매장은 매년 당해 연도를 상징하는 동물을 활용한 골드바를 출시하고 있다. 소와 쥐,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를 활용한 12가지 띠를 나타내는 돌반지나 목걸이 등 제품을 내놓았다. 편의점 이마트24는 올해 설을 맞아 한국금거래소와 손잡고 골드바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이마트24는 오는 24일까지 금 선물세트 3종을 선착순 한정 판매한다. '소 문양 골드바' 10돈(37.5g) 20세트, 1돈(3.75g) 400세트, '아기천 사들반지' 1돈 200세트 등이다. 가격은 29만9900원부터 285만8000원까지다. 이 상품은 이마트24 매장을 방문해 주문 및 결제(현금결제만 가능)할 수 있다. 주문한 상품은 판매시작 다음 날인 19일부터 우체국 안심택배를 통해 순차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배송된다. 이마트24는 비대면 선물 트렌드에 따라 올해 설 선물세트 중 80%(260종)를 무료배송으로 준비했다. 이는 지난 해 설 대비 2배 이상 늘린 수량이다. 이마트24는 배송이 불가한 30여 종의 주류를 포함해 매장에서 판매하는 통조림, 위생용품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모두 무료배송으로 준비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1층 '골드듀' 매장에서 2021년 신축년 기념 소의 이미지가 새겨진 골드바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롯데백화점 광주점, 프리미엄 식품관 22일 오픈

대대적 리뉴얼...유명 맛집 입점·당일배송 서비스도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하 1층 식품매장을 11년 만에 대대적으로 재단장해 오는 22일 프리미엄 식품관으로 새롭게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업계의 어려움이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 대표 식품관을 원하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70억원에 달하는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점은 지난해 11월 업계 최초로 '전남도 로컬푸드 전문관'과 간편 조리식 매장인 '광주키친', 글로벌 그로스리거 확대된 슈퍼매장을 1차로 연이어 이어 이번 2차로 '푸드에비뉴'를 완성했다. 푸드에비뉴는 롯데백화점의 프리미엄 식품관으로 매장 인테리어부터 전까지 고급화되고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매장이다. 개선공사에서 눈에겨야 할 것은 델리 매장 확대와 유명 맛집의 입점이다. 델리(음식) 매장은 기존 면적보다 50% 넓혀 전국의 맛집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만주전점점 서울 종로 익선동의 '창화당'과 제주 흑돼지 수제버거 맛집인 제주 서귀포의 '88버거' 등이 자리 잡았다.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지역 맛집으로 팍죽 전문점 '상무팍죽', 베트남 음식 전문점 '한끼', 제주음식 전문점 '제주당', 광주 최초의 브런치 카페인 '아필코' 등이 들어섰다. 지난해 12월 추진한 1차 개선 공사에서는 '비움반찬', '해담촌', '국보966' 등이 매장을 채웠다.

'비움반찬'은 광주에 7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며 남도 음식을 소포장으로 판매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해담촌'은 직접 담은 젓갈과 지역 농산물을 선보이는 김치 맛집이다. 담양 '국보966'은 50년 전통 옛날식 손두부를 내놓고 있다. 광주점은 지역의 대표 맛집과 전국 맛집의 유치를 통해 지역의 대표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프리미엄 식품관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테이블에서 주문, 결제, 확인, 픽업 등이 가능한 모바일 오더나우 시스템도 선보인다. 인기 매장에서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태블릿을 통해 대기 예약을 할 수 있는 '웨이팅 시스템'도 운영된다. 손만 갖다 대도 세정부터 건조까지 노려치로 가능한 '센서인식 일체형 손씻기'를 설치했으며 시식 테이블 수도 70여 개 늘렸다. 신선 가공식품과 생필품은 당일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광주점 인근 3km 이내 무료 배송 서비스도 진행한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매장 오픈 기념 할인 행사와 친환경 장바구니 증정 등도 예정돼 있다. 나연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지역민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11년 만에 식품 매장을 전면 리뉴얼했다"며 "프리미엄 식품관인 '푸드에비뉴'를 통해 앞으로도 지역의 신선한 먹거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반려식물과 '집콕'...원예용품 매출 210% ↑

광주 이마트 이변달 매출 급증

'집콕'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려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실내 원예가 인기다. 19일 광주지역 4개 이마트에 따르면 이달 1일~18일 이들 매장의 원예용품 매출은 1년 전보다 210.6% 급증했다. 품목별로 보면 재배용 씨앗 매출이 68.5% 증가했고, 공기정화 식물은 29.3% 올랐다. 전년과 비교한 원예용품 매출은 2018년 12월 13.2%에서 2019년 12월 41.7%, 2020년 1월

210.6%로 매해 오름세다. 실내 재배용 식물을 집안 분위기를 바꾸거나 관상용으로도 좋지만, 허브나 쌈채소는 직접 길러 식탁에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마트는 화분 식물 뿐만 아니라 고급 배양도, 식물 영양제 등 관련 상품을 확대했다. 김양호 이마트 광주점장은 "집 안에서 텃밭을 가꾸는 활동과 더불어 공기 정화식물로 쾌적한 집안 분위기를 연출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광주 60명·전남 45명 등 초창기 창업 전반기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1기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과 혁신기술 등을 보유한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다. 모집규모는 광주 60명, 전남 45명을 비롯한 전국 총 1065명이다. 이들에게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비롯해 사무공간과 제품 제작 관련 장비인프라, 코칭, 교육, 판로 개척 등 초창기 창업 전반기 지원을 지원한다. 특히 광주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 생체의료,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형 등 지역특화산업종을 우선 선발하고, 전남은 바이오헬스케어, 첨단운송기부품, 그린에너지,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등 업종을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2월8일 오후 5시까지이며,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